일 시: 2020 년 05 월 04 일 월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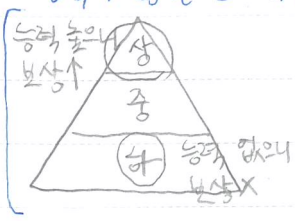
주제: 사회불평등과 교육

1.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점

a. 기능론 : 계층적 시각 (상, 중, 하)

→ 분배의 불평등 : 차등적 보상에 대한 서열화된 구조와 사회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능력이 많다는 건 노력이 많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 "나는 -에 속하는 것 같아요!" : 주관적인 의견

→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은? 직업! (교육수준, 사회지위, 수입이 드러남)

→ 누가 이렇게, 왜 나눌?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려고

→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적 보상

b. 갈등론 : 계급적 시각

→ 사회구조의 불평등 : 지배, 착취, 사회적 폐쇄가 은폐돼 있음

ex, 자본가, 노동자 → 지배, 착취, 사회적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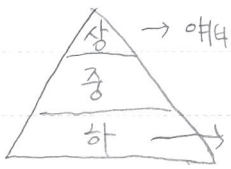
ex2.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 지배, 사회적 폐쇄

정책 만드는데 참여 안시켜줌.

→ 분배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다! 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 이윤착취, 사회적으로 폐쇄시킴.

2. 사회적 불평등과 합의

a. 기능론 : 사회불평등은 차별적 희소성, 기능적 중요성에 의해 나타난다



→ 얘네가 차별적 희소성, 기능적 중요성을 가지니까 보상해줘야 함

→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능력주의 사회에서 합의된 것!

b. 갈등론 : 사회불평등은 (차별적 희소성, 기능적 중요성이 아니라)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 이겨서 지배계급된 것!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조작이고 합의는 불가능하다

ㄱ. 자본가, 지배계급 : 투쟁결과 얻어진 산물. 합의된 것이란 이념을 주입함.

ㄴ. 노동자, 피지배계급 : 부당하지만 방법이 없어 받아 들이고 기다림

역사적 투쟁에서 패배해 정책, 법을 못 바꾸니까! 단, 심하면 연대의식으로 투쟁함

3. 사회이동의 개념

약: 기능론에서는 사회불평등을 계층적시각에서 봐 분배의 불평등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차별적 희소성과 기능적 중요성에 의해 나타나는 차등적 보상으로 서열화된 구조와 사회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갈등론에서는 사회불평등을 계급적 시각으로 봐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불평등은 역사적투쟁의 산물로 지배, 착취, 사회적 폐쇄가 은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JEONJU UNIVERSITY

일 시: 2020년 06월 15일 월 요일

단원 및 주제: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

1. 신교육 사회학의 개요

a. 등장: 기능이론 비판 ⇒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평등 실패

b. 관심: 학교 내부현상 ⇒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교육과정 불평등 때문이다

c. 분류

ㄱ. 형식적(표면적) 교육과정 ⇒ 과정 속에 불평등 원인이 있다는 게 신교육사회학

* Tyler의 교육과정 모형
  - 교육목표: 구체적 목표 설정
  - 교육내용: 학습경험의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논리적 체계의
  - 교육방법: 학습경험의 조직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함)
  - 교육평가: 학습성과의 평가 ex. 총괄, 형성, 기말 ⇒ 목표달

ㄴ. 비형식적(잠재적) 교육과정: 형식적 절차는 없지만 형식적 교육과정과 같거나 비슷한 기능을 발휘하는 교육과정 ⇒ 학생에게 주는 의미는 동일

<괄호에 따라 2대2대 생성>

d. 비판: 전통적 지식관 비판

지식관 비판

전통적(기능론)관점.

- 절대주의 지식관
- 지식: 객관성, 보편성, 정치적 중립성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은 정답이라 생각하여 누구나 똑같이 배운다. 정치적으로 편파적일 경우 비판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를 내면화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신교육사회학

- 상대주의 지식관
- 지식: 허구성, 이념성, 주관성

지식(교과서 수록된)은 누군가가 그들의 입에나 문화를 사용해 선별처리한 것 국정교과서에는 국가이념이 들어갈 가능 있다.

ㄱ. 전통적(기능론) 지식관: 객동주의적

- 이성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 객관성, 보편성이 있어 표준화 가능
-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 보편성을 주장

① 목표와 내용의 보편성: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초등의 경우, 전국의 동일한 학년 학생 동일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적용 전문계고만 국정교과서, 나머지 중.고는 검인정

② 평가의 보편성: 수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전국규모시험.

요약:

일 시: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단원 및 주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

신프로이드 학파란?

☆ 학생들이 성적 발달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초·중고 교육현장에 풍부한 시사점을 준다.

1. 신프로이드학파

a. 프로이드의 지나친 아동 성욕의 강조에 대한 회의

: 성적 발달은 생애초기에 생물학적, 성적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 갈등을 처리하면서 형성된다.

ㄱ.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 + 심리사회적 환경 ☆

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구를 갖고 있고 성적발달은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일어나지만 사회적환경, 특히 양육자가 제공하는 보살핌과 지원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2. 전생애발달이론 : 성적 발달을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로 구분함.

ㄱ.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psycho-social crisis) 출현

→ 특정시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

→ 위기의 해결양상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양극의 성적 발달.

3. 정체감 확립 : 발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 청소년들은 정체성 확립과 혼동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삶에서 원하는 것이다. 만약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갈등이 해결된다면 '성실함'을 얻게 된다. 이는 어떤 것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 선한 목적을 위해 전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순서대로 써라.

4. 발달단계

a. 신뢰감 vs 불신감

ㄱ. 0-1세 (영아기 / 프로이드의 구강기)

ㄴ. 주요사회적 관계 : 주양육자

→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는 절망대신 희망(신뢰로운 관계형성)을 갖게 된다.

b. 자립성 vs 수치심/의심

ㄱ. 2세 (걸음마기 / 프로이드의 항문기)

ㄴ. 주요사회적 관계 : 부모

요약: 신프로이드학파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에 심리사회적 환경을 추가한 것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① 신뢰감 vs 불신감 ② 자립성 vs 수치심/의심 ③ 주도성 vs 죄책감 ④ 근면성 vs 열등감 ⑤ 자아정체성 확립 vs 역할혼미 ⑥ 친밀성 vs 고립감 ⑦ 생산성 vs 침체성 ⑧ 자아통합감 vs 절망감

일 시: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단원 및 주제: 지능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

1. 지능이란 - 지능검사가 측정하는 것 (검사가 먼저 나온 후 이론화 됨)

⇒ 추상적사고 능력 +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 학습 능력 + 실제적 적응 능력 + 사회적 맥락

★ 최근에 추가 (지능 높다고 성공X)

a. 지능의 구조 → 하위 요소들의 관계 (위계적인가, 평면적인가)

일반요인이론과 다중지능이론 이란?

ㄱ. 일반요인이론 : 모든 능력은 상관돼 있고 기저의 능력은 하나다.

ㄴ. 다중지능이론 : 능력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하나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 아니다.

b. 일반 지능이론

Spearman의 g-요인설이란?

ㄱ. Spearman의 g요인설

① 여러 측정 문항 간의 상관이 높아서 결국 지능은 하나의 요인이다.

② 일반요인: 모든 지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정신 에너지

↳ 기저의 능력은 같으니까

Gf-Gc 이론을 설명하라!

ㄴ. Gf-Gc이론 (일반 요인 이론을 정교화)

① Gf (유동성 지능, fluid)
- 기본적인 정보처리
- 유전적, 생리학적 영향
- 25세 이후 감소
- 하위요인: 기억력, 자각 및 일반적 추리력, 정신 속도, 기계적 암기

② Gc (결정성 지능, crystallized)
- 문화적 지식 기반
- 환경적, 교육적 영향
- 25세 이후 유지/증가
- 하위 요인: 논리적 추리력,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상식

c. 지능검사

ㄱ.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중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조기교육하기 위함.

→ 학업성취도 검사의 형식과 내용 유사

ex. Binet 검사 (집단), Wechsler 검사 (개인)

↳ 다양한 도구 활용

요약: 일반요인이론은 모든 능력이 상관돼서 기저능력은 하나라는 이론이고 다중지능이론은 능력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해 하나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론이다. Spearman의 g요인설은 일반요인이론과 같은 의미이다. Gf-Gc이론은 일반요인 이론을 정교화한 내용으로 Gf(유동성지능)는 25세 이후 감소하는 유전, 생리학적 영향의 기본적 정보처리과정을 말하고 Gc(결정성지능)은 25세 이후 유지/증가하는 환경, 교육적 영향의

일 시: 2020 년 04 월 28 · 일 화요일

원 및 주제: 행동주의

※ 행동 — 행동
　　 — 행동 잠재력

학습이란?

1. 학습: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혹은 행동잠재력의 변화

※ 반사적 행동, 자연성숙에 의한 행동변화, 약물이나 피로에 의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음

2.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태동 →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능력 X.

a. John B. Watson 같은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이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b. 인간의 능력이란 적절한 환경의 조성과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c.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관찰 가능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d. 조건형성: 연합학습 (3가지 유형)

조건형성은 어떤 유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ㄱ. 시간적으로 인접한 자극들은 연합된다 → 고전적 조건형성

ㄴ. 하나의 자극과 그 반응은 연합된다

ㄷ. 하나의 반응과 그 결과는 연합된다 → 조작적 조건 형성

3. 고전적 조건형성 (이반 파블로프)

→ 개의 소화력 실험 중 밥을 주러 가는데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가 침흘리는 것을 알게 됨.

(관찰 가능한 일: 개의 침분비량)

고전적 조건의 형성과정은?

a. 중립자극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극) ⟶ 반응 X

b. 무조건자극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 무조건 반응

c. 조건형성 과정 → 2개의 자극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학습됨.

: '중립자극 + 무조건 자극'을 반복적으로 짝지음 ⟶ 반응

d. 조건형성후

: 중립자극은 자극화 돼 '조건자극'이 됨 ⟶ 조건반응

※ 연합학습의 절차 → 3조건이 만족돼야 학습됨.

: 제시순서 → 제시간격 (직후) → 연합횟수

요 약: 학습이란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행동잠재력의 변화이다.
조건형성은 인접한 자극의 연합, 자극과 반응의 연합, 반응과 결과의 연합으로 형성된다.
고전적조건형성과정은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립자극과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을 반복적으로 짝지어 중립자극을 자극화시켜 조건자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건

JEONJU UNIVERSITY